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한 새 사람 (에베소서 2:11-22)

One new man (Ephesians 2:11-22)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은 죄 때문이었고,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된 것은 무할례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Gentiles were not only considered distant from God, but also treated as such by the Jewish people. It was because of their sins that they were distant from God, while it was because of their uncircumcision that they were treated as distant by the Jewish people.

1. 이방인으로서의 인간상

이방인의 다섯 가지 특징은 희망이 없고, 경건이 없고, 메시아도 없고, 언약도 하나님의 통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두고 '멀리 있던 너희' (13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 (11절)고 합니다. 이방이었고 외인이었고 소외된 자였고 메시아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1. The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Gentiles

Unpacking five of the Gentiles' characteristics, Paul says that they had no hope, piety, Messiah, covenant, or reign of God. He also said regarding the Gentiles, "you who were once far away" (13). He told them that they needed to "remember" what they once were (11). This means that we also need to remember a time when we were Gentiles, aliens, and an isolated people who had no Messiah or God. The basis for thanksgiving is

우리는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를 잘 기억해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remembering.' Those who do not keep these truths in mind will never give thanks to anyone.

2. 새 사람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버린바 된 자가 아닙니다.

Only when we remember the time when we were once aliens can we sincerely give thanks to God.

2. A new person

In verse 13, the transitional word, 'now,' appears. However, it is better to read this conjunction as, 'but now.' We were once people who did not have God. But now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we have been reconciled with God and have new life. But now we are no longer alienated and abandoned. Jesus Christ has abolished the law in His flesh, and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he has completed the requirements of the law. But now he has created us in himself as a new man, thus making peace with God.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3.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건축자의 집짓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터를 잡는 일입니다. 20절에 의하면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과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3. Christ Jesus as the chief cornerstone

The Apostle Paul explains the church by using an analogy of a builder's construction. The first thing a builder needs to do when building a house is to pick out its foundations. In v. 20,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is given as the faith and teaching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In other words, the church is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faith and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For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he himself has become their chief cornerstone.

2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예수님 안에서 지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모퉁이돌이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In verse 22, Paul hopes that the saints will build the church so that God dwells in Jesus Christ. Therefore, we too become a miniature cornerstone, becoming the saints who build a holy temple where God dwells and takes pleasure.

모퉁이돌은 주춧돌처럼 집을 버티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모퉁이돌은 서로의 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에 필요 불가결한 절대적인 존재이면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직분을 감당합니다.

The cornerstone has a role in supporting the house as its foundation. And it also has a role of joining together each wall. The cornerstone plays an integral part of the structure. It is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holding together of the building. And yet, it never gains a person's notice, but silently bears the weight of its dut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시대와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작은 모퉁이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 되어 교회의 모퉁이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must emulate Jesus Christ as our cornerstone by becoming miniature cornerstones who are an integral part of this generation and society.

By becoming one new man as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and bearing our duty, I sincerely pray that we wi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who please H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بل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종운 목사, 원로·공로목사 만장일치로 추대하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 2층에서 열린 공동의회에서 이종운 목사 원로·공로목사 추대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대리당회장 이수종 목사(은무리교회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이날 공동의회는 노문환 장로의 기도 의장의 성경봉독(살후 3:16)이 있은 후 당회 서기 김영준 장로가 이종운 목사 원로·공로목사 추대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가결된 이종운 목사 원로·공로목사 추대의 건은 11월 9일 개최되는 서울강남노회 제47회 정기회에 상정된다.

2010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2010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8월30일 마가복음 반고 세계선교대학을 시작으로 10주간 각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2010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안내브로슈어를 자세히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 강좌 | 요일 및 시간 | 담당 | 장소 |
|----------------|-------------------------------|----------|------|
| 미가복음반 | 월 오전 10:00-11:00 | 노현상 목사 | 602호 |
| 에스더반 | 화 오전 6:00-7:00 | 박광일 목사 | 602호 |
| 출애굽기반 | 목 오후 7:30-8:30 | 정수길 목사 | 602호 |
| 요한계시록반 | 금 오전 6:00-7:00 | 한상은 목사 | 602호 |
| 성경통독반(30주) | 목 오전 10:30-12:00 | 문경훈 목사 | 602호 |
| 교사 양성반 | 주일 오후 3:20-4:30 | 교역자 전체 | 609호 |
| 주중 교사 양성반 | 금 오후 7:00-8:00 | 교역자 전체 | 503호 |
| 교구일꾼 양성반 | 주일 오후 3:20-4:30 | 교역자 전체 | 607호 |
| 주부대학 | 화 오전 10:00-오후 1:00 | 박종민 목사 | 601호 |
| 살롬 경로대학 | 목 오전 10:00-오후 1:00 | 서명철 목사 | 101호 |
| 세계선교대학 | 월 오후 7:00-8:30 | 장석남 목사 | 602호 |
| 마리아학교 | 목 오전 10:30-오후 12:30 | 김은숙 전도사 | 706호 |
| 영어성경공부반 | 토 오전 11:00-12:00 | 조슈아 조 목사 | 603호 |
| 서울음악학교(10주간) | 주일 오후 1:30-3:00 (9/5 - 11/7) | 박정선 장로 | 601호 |
| 결혼예비학교(5주간) | 주일 오후 12:40-1:40 (9/5 - 10/3) | 한상은 목사 | 905호 |
| 수화교실 중급반(12주간) | 목 오후 7:00-8:50 (9/2 - 11/18) | 임규현 목사 | 606호 |

8월 성경통독자

- <4독> 김해수 집사(11교구)
- <2독> 채복순 권사(7교구) 유을상 집사(6교구)
- <1독> 이완형 장로(10교구) 김진숙 권사(9교구)
이순창 집사(2교구) 우승희 집사(3교구)
정미자 집사(11교구)

2010장로교의 날 행사영상 홈페이지에 등록

지난 7월10일 열린 1교단 다체제 연합을 선언한 2010년 장로교의 날 기념 연합예배의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다.

교회홈페이지 - (<http://www.seoulchurch.or.kr>) 메인화면 상단부 장로교의 날 자세히보기를 클릭한후 후 하단부 동영상 보기를 클릭하면 예배영상을 볼 수있다.



W.C.C.와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제안

I. WCC가 한국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

한국기독교학술원은,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회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하며 WCC가 과거처럼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기독교학술원의 의견을 WCC와 한국교회에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II. WCC에 대한 제안

1) WCC는 세계 '교회연합운동'의 시작인 1910년 에딘버러Edinburgh 세계선교사대회의 근본취지가 피선교지에서의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연합에 있었음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 WCC는 대사회적인 문제들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교회연합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제안한다.

2) WCC는, '오이쿠메네Oikoumene'란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비워 인간을 섬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요 17:21-23) 하나님의 구원경륜 속에 있음을 깊이 이해해 줄 것을 제안한다.

3) WCC는 기독교의 진리(眞理 the truth)와 타 종교의 일리(一理 a truth)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WCC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연합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복음 증거를 종교 간의 대화로 대체하려는 것인지 명백하게 구별하여 천명해 줄 것을 제안한다.

4) WCC는 기독교 사상에 위배되고 반기독교적인 '共產主義'와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WCC가 추구하는 세계평화와 안전 그리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운동'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共產主義'의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인지 명백한 구분을 재천명해 줄 것을 제안한다.

5) WCC는 교파간의 신앙고백과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회연합운동'을 로마교황처럼 교회들의 유일한 '최고주무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선행운동이 아님을 - 이미 성문화되었고 천명되었지만 - 재천명해 줄 것을 제안한다.

III. 한국교회에 대한 제안

1) 한국교회는, 'WCC가 선교를 위한 연합운동'(고전 3:6-7)에 그 근본취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선교연합'을 이미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통하여 실현하였음을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선교'는 개인전도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을 통해서 포괄적으로도 이루어짐을 인지해 줄 것을 제안한다.

2)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바로 '세상통치영역(οικουμένη) 혹은 세상(κόσμος) 속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깊이 인지하고, 자기 교파 신학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타 교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

IV. WCC와 한국교회의 공동과제

1) WCC와 한국교회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과멸시키는 어떠한 '악한 세력'에 대하여는 서로 협력하여 함께 대항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WCC와 한국교회는 각 교파가 서로 적극적으로 '일치', '통일', 혹은 '사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 이를 성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학술원'은 WCC와 한국교회가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바른 신학을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파마다 최선의 선교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을 서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Soli Deo Gloria!

한국기독교 학술원 이사장 : 이흥순
원 장 : 이종성
부원장 : 이종운

군목이 된 이등병 이종윤

육단리 18연대 연대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이등병 이종윤은 사단장 차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날은 연대군목이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마지막 주일이었다.

무슨 영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단장께서 송별 예배참석차 오심으로 연대장도 참모들도 예배에 참여했다. 교인은 50명 정도였다. 예배후 귀대하러 할 때 군목이 신병이니 점심먹고 가라 했다. 점심먹는 자리에서 군목이 자세히 인적사항을 묻더니 같은 동리사람이라고 좋아했다. 이종윤이 섬기던 충현교회 앞에 있는 신광교회(통합측)출신 목사님이 고향친구 만났듯이 반기면서 오늘 저녁에 배 설교를 하라 한다. 이종윤은 준비없는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사양했으나 강권에 못이겨 그날 저녁 예배 설교를 한다. 그 예배에 연대장이 다시 참여하고 예배후 나가시면서 새 군목 부임시까지 네가 이 교회 설교를 맡으라 한다. 이종윤은 커다란 난방울만 굴리면서 아무런 말을 못했다.



군입대를 하면서 이종윤목사 누님과 함께

군목이 대대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내가 이종윤이

등병이 필요하니 당분간 육단리 연대교회로 파견 시켜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그 교회에 하사와 병장 계급을 가진 군중하사관이 두 분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다. 월요일 연대 인사참모가 이종윤을 호출하여 5.16군사혁명 성공 당위성을 세우는 군단 대항 웅변대회 전동이 내려왔는데 많은 확보병들이 네가 웅변선수라고 추천하니 오늘부터 2개월간 원고를 쓰고 웅변연습만 하고 교회에서 거주하라는 명을 받는다.

같은 동료들은 피약별 밑에서 진지 구축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데 이종윤은 웅변 원고를 쓰고 연습에만 전념했다. 한달가량 지날 무렵 연대인사참모가 웅변대회가 취소되었으니 소속부대로 귀대하라 한다. 그때엔 연대교회에 목사님도 새로 부임했고 하여 전방소대로 복귀하여 대대장에게 귀대보고를 한다. 육군소령 김용진대대장이 귀대 보고를 받자 부대원은 대대에 있는데 교회는 연대에만 있으니 우리 대대에서 자네가 오늘부터 군목역할을 하

면 좋을 것이라 한다. 대대장은 자기가 입던 탱크잡 바를 주면서 대대원에게 인격지도 교육 및 종교활동을 부탁한다. 이등병 이종윤은 그날부터 18연대3대대 군중병 명찰을 달고 군목사역을 한다.

9, 10, 11, 12중대와 본부중대까지 매월 1회씩 저녁시간에 중대별로 인격지도 교육을 시키고 최전방 처소를 심방하여 문맹자를 위해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받은 편지를 읽어도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당시 월남전의 전운이 깊어져 사단장은 사단내 장교들에게 매월 시사시회를 치는 제도를 만들자 대대장은 재빨리 이종윤에게 자기 부대 장교들에게 매주 특강시간을 만들어 시사해설 강의를 하도록 명령한다. 이렇게 준비한 부대가 없으니 당연히 18연대3대대가 항상 사단장 표창을 받는다.

서울에 있는 기독교 중고대학교를 찾아가 이종윤은 전방의 군인들의 실태를 채플시간을 빌려 알려주고 군인들에게 사기를 높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9트럭 분량을 얻어 사단에서 지원하는 트럭으로 위문품을 운반하여 작전훈련시 전방에 통신장교차로 먼저 이동하여 위문편지를 나눠주고 작전 후엔 위문품을 부대를 찾아가 나눠주므로 군인들의 사기는 물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다음호에서 계속)

장로가족수련회를 마치고

옛것을 더욱 새롭게

오광환 장로 (12교구)

지난 8월 16일 ~17일 1박 2일로 포항 청통회관에서 장로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종윤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사도의 마지막 권면 (행20:17-35)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강 첫째시간은 강사 이종윤 목사님의 “크리스찬 지도자론”의 제목으로 크리스찬 지도자는 1) 행동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방법으로 하나님 밀씀, 그리고 동기로 하나님의 사랑, 2)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섬기는 종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3) 하나님의 주되심, 절대주권을 믿으며, 그의 소유권, 회수권, 감사권, 사용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그의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박노철 목사님께서 “나의 목회 비전”의 제목으로, 1)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이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과 같이, 서울교회는 이종윤목사님께서 뿌리신 귀한 씨앗에 영양 많은 물을 주어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도록 할 것인바, 부흥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옛것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종윤 목사님의 목회철학 전통을 잘 이어받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

며, 2)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도 감독자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고, 3)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도록 하며, 4)성도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그를 즐거워 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고, 5)다락방사역을 강화하여 소그룹활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나누며, 성도간에 교제하고, 서로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새벽기도회에는 요나서 전체를 한사람이 한절씩 봉독하고 2~4명씩 짝을 이루어 도고하는 시간을 갖고, 오고 가는 시간에 장로님들이 나와 개인의 신앙역사와 은혜받은 체험들을 나누며 간증할 때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장로들은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그의 마지막 수련회로 아쉬운 가운데 부족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로서 다시 한 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옛것을 새롭게 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간안내 「이사야 I, II 권」

이종윤 목사가 서울교회 강단에서 5년 3개월간 매주 수요일예배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이사야 I, II 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필그림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으며 이사야 I 권은 신국판 540면에 가격은 15,000원이며 이사야 II 권은 신국판 420면에 가격은 12,000원이다.

우리교회 서적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어린이수요예배

어린이 수요예배, 참 좋아요!

서정호 성도 (5교구, 주찬양 어린이 어머니)



주찬양 어린이

지난 월요일~~꼭꼭 찌는 더위속에 부푼 기대를 안고 찬양이와 동생들은 수요어린이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경기도 양평의 '들꽃 수목원'이었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특히, 아름다운 들꽃과 나무들이 강과 어울려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았어요. 자연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이 났어요.

어린이 수요예배, 찬양이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서울교회를 만나지 3년이 되었지요. 어린이만을 위한 수요예배가 있다는 것에 때로되어 첫 어린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날은 가슴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엄마인 내게는 그 한시간의 예배시간이 쓰러지고 싶을 만큼 힘든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찬양이와 두 동생들이 예배시간내내 뛰어다니고 책상위로 올라왔고 싸우고 울고.....

도무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지요. 1년이 넘도록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정말 포기하고 그만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다~라고 말

할 수 있어요.



어린이수요예배 모습

서서히 변화되는 찬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인 찬혁이와 성경이에게도 이 변화는 찾아왔어요. 가장먼저 변화되기 시작한 건 예배시간 동안의 태도와 자세였어요. 차분히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읽는 것이 달라졌어요.

두번째는 언어의 변화였어요. 화가나면 욱부터 나오던 찬양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욱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세번째는 생각의 변화였어요. 예배시간에 딴생각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찬양이의 입에서 설교말씀이 가끔씩 대화중에 나오면서 건전한 정신이 정립되어감을 느꼈어요.

수요일에 어른예배를 데리고 다녔더라면 이런 변화는 더뒀을 거라 생각해요. 어린이에 맞게 어린이의 생각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드럽게 다져진 말씀과 예배이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이명신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연세대학교 음대와 독일 갈스루에 국립음대에서 공부하였으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였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대학원장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늘은 '인애하신 구세주여(W.H.Doane곡)'의 두곡을 장로회신학대학교 재졸 오르가니스트인 김은성 선생의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늘 변함없이 헌신적이고 믿음 좋은 샘들~이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도 찬양이는 '~ing'랍니다.

저도 그리고 찬양이 동생들도... 지금도 야생마의 기질이 넘치지만 저절로되는 아름다운 야생마들이 될 것임을 믿어요. 어린이 수요예배를 포기하지 않다면요 ~~~~

등정

- 이종운 목사는 23일(월) 한국교회 지도자 청와대 오찬 초청에 참여한다. 26일(목) 한국연합선교회 (KAM)임원회를 소집한다.
- 오자경 집사 (1부 오르가니스트)는 ARP-SCHNITGER-FESTIVAL 공콜 심사원과 연주를 위해 8.19-31 독일출국
- 박사학위 수여: 김동욱 성도(12교구 김성준 집사 김선영 권사 장남 이수경 성도 부군)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 수상: 조재석 학생(고등부)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고등부 전국연합회에서 지난 14일 모범상을 수상
- 고등부 교사들이 28일(토) 청양에서 교사수련회를 갖는다.

- 주간식당봉사: 리브가전대회 (8.22) 제1스데반(8.29)
- 금주의 식사: 이미리(김태욱), 이미영(박원탁), 이미경(서영림) 집사 가정 (아버지 이종운 목사 70회 생신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 주 일 예 배 | I 부 | 오전 9시 |
| | II 부 |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 영 어 예 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 수 요 예 배 | I 부 | 오전 11시 |
| | II 부 | 오후 7시 |
| 금요일기도회 | 오후 8시30분 |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

현재 '사랑의 온도'는 351도-한 번씩 꼭 참여를

다음 주일부터는 '웃장비우기' 행사를 진행

8월 한달 동안 전개되고 있는 사랑나눔 A+캠페인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지난 주에는 청년2부 회원 상당 수가 10% 절제약정에 참여하는 호응이 있었다.

또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온도계 행사에는 지난 주일까지 351만원이 모금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8월 한달 동안 꼭 한번씩은 참석하여 사랑의 온도를 계속 높여주시기 바라고 특히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 등 봉사시간이 겹쳐 정해진 모금시간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부서에서는 부서장을 통하여 단체모금으로 참여하여 주면 온도계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오는 8월29일부터 사랑나눔A+캠페인의 마지막 행사로 웃장비우기운동을 전개한다.

자신에게는 별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만한 재활용의류를 모아 잘 정리하여 기증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보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다음주와 그 다음 주일(9월5일)을 이용하여 1층에 마련된 수집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 행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는 9월 바자행사 때 8층 푸드코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증정하게 된다.(1가구 당 1회에 한하며 재활용의류 3점 이상 기증시 1,000원, 10점 이상 기증시 2,000원에 해당하는 쿠폰

을 제공)

아울러 재활용의류 이외에도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성도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물품 및 헌물(부동산, 회원권, 상품권, 유가증권, 도자기, 미술품, 귀금속 등) 등도 같은 기간에 사무국에 접수하여 주기 바란다.

지난 주간 추가로 접수된 나눔과 절제약정에 동참한 성도명단은 다음과 같고 동참한 성도들은 8월 한달 동안 적립된 나눔과 절제기금을 9월 첫주 헌금시간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바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1% 나눔운동 참여약정자(팔호안은 운영기업명칭)

강낙훈 안홍희(한소리이앤씨 전기통신) 윤미란(한정식 미진) 이영숙(국립중앙도서관) 이태승

*10% 절제운동 참여약정자(팔호안은 가족 또는 후원부모 이름)

강낙훈 강혜주 고아라 권오영 김다희 김도현 김성은(이갑연) 김영수 김유진-김환기(김광민) 김진우 김진희 김현진 박정현 박진경 박현미(방계은) 신모란 신재호 신현창 신혜영 안혜민-안혜련(전화진) 양승무 양정훈 우령찬 우일환 이영숙 이윤재-이윤미(한경신) 이인영 이준범 이지은(장성자) 이태승 이현정 장현주 정승락 차선희 최유현 최정식 최진경 하정 하유정(하환)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38학기 목회자세미나, 28학기 열린프로그램 많은 열매 맺도록
4.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 교회외시는 길

